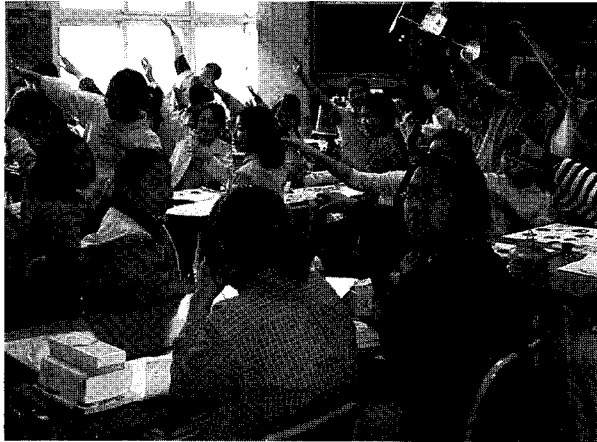


과학의 달, 4월 축제가 시작된다

과학의 달인 오는 4월 로봇 달리기 대회와 전국 로켓발사 대회 등 다채로운 과학기술 체험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과학기술부는 36회를 맞는 과학의 날(4월 21일)과 4월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식은 물론, 거리 과학예술축전, 지역 과학축전, 인터넷을 통한 과학문화 행사 개최 등을 내용으로



▲ 지난해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과학의 날 행사. 이날 모든 학생들은 과학자를 꿈꾼다.

하는 '제36회 과학의 날(달) 행사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행사 계획에 따르면 과학의 날 하루 전인 4월 20일 서울 동숭동 대학로 일대에서 거리 과학예술 축전이 열려 로봇 달리기대회와 로봇 완구전, 거리 축제, 과학연극 및 영화전 등 가족 단위와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행사가 벌어진다. 이와 함께 4월 한달 동안 경기지역에서 과학기술 체험의 장과 과학기술 성과물 전시회, 가족 과학경연대회, 실험 시연회 등 과학축전이 열리며 인터넷을 통해 과학동시 백일장, 생활 아이디어 공모전, 과학 퀴즈대회가 마련된다.

또 대중 강연회, 과학문화 시설 개방, 전국 로켓발사대회 등 행사가 과기부 산하 과학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민간단체의 지원과 참여로 펼쳐진다.

과기부는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이 과학특강이나 과학축전, 청소년 과학경진대회 등 지역 특성과 실정에 맞는 행사를 실시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 행사인 4월 21일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는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과 과학기술진흥 유공자에 대한 대통령 훈·포장이 수여된다. 이에 과기부는 부상으로 1인당 3억원씩 최대 4명에게 수여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 후보 34명과 유공자 172명의 후보를 접수한 상태다. 또한 과기부는 과학의 달에 대통령상과는 별도로 우수 과학어린이(5,300여명), 우수 과학교사(180여명), 과학기술진흥 유공자(100여명)에게 과기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경북 과학영재교육원 다음달 개원 예정

경상북도교육청은 과학영역의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한 과학영재교육원을 이번 3월 개원할 예정이다.

지난달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북도교육과학연구원 포항분원에 과학영재교육원을 설치, 초등학생(4~6학년)과 중학생(1~3학년) 20명씩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0일 각 지역교육청이 상위 3%이내의 학생 가운데 추천한 초·중학생 60명 중 최종적으로 40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심화학습 위주의 과학(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 및 발명 분야를 출석 및 순회수업, 원격수업, 영재캠프 등을 통해 연간 110시간의 영재교육을 받게 된다.

도교육청은 교수, 교육연구사, 중등학교 교사 등으로 강사진을 구성해 창의력 개발 위주의 교육내용을 편성할 계획이다.

특허심사기간 1년 내외로 대폭 단축

과학기술 특허심사기간이 현재의 절반 수준인 1년 내외로 대폭 단축된다.

지난달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23개월인 우리나라의 특허심사기간을 독일, 미국 등 선진국 수준인 1년 내외로 대폭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 현재 641명인 특허심사관도 2007년까지 500명 가량 증원될 예정이다.

인수위는 정보기술(IT)산업의 경우 지적재산권 확보와 표준선점을 위해 특허심사기간 단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이같은 방안을 지난달 21일 발표되는 인수위 최종보고서에 포함시켰다.

경제2분과 박기영 위원은 '특허심사기간이 단축하려면 심사관도 대폭 늘려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고급인력 고용 창출효과도 기대된다'며 '특허청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심사인력의 아웃소싱 방안도 적절히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선행기술조사 등의 아웃소싱 비율을 현행 32%에서 65%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리나라의 특허심사기간은 지난 2001년 기준으로 독일(10개월), 미국(14.4개월), 일본(21개월)이 이어 세계 4위 수준이다.

본격 과학 소재 연극, 국내 처음으로 도입

과학연극이 처음으로 국내에 도입된다. 과학연극 전문단체인 '한국매드사이언스 프리덕션'이 지난달 7일부터 23일까지 서울 대학로 정보소극장에서 과학실험을 주된 내용으로 한 연극 '집에서 따라하지 마세요(김수아 연출)'를 공연했다. 지금까지 더러 '과학연극'이라는 이름으로 공연된 작품들이 환경이나 우주탐사 등 과학적 소재를 다룬 작품에 불과했다면 이번 작품은 과학교육을 위해 연극적 형식을 취한 본격 과학극.

당초 이 작품은 캐나다의 과학교육 프로그램 단체인 '매드사이언스 교육센터'가 한국제목과 같은 의미의 'Don't Try This At Home'이라는 제목으로 초연했다. 매드사이언스는 캐나다의 20년 전통의 과학교육 프로그램으로 과학전공 교사들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을 연극화한 것이 이번 작품으로 지금까지 미항공우주국(NASA) 방문센터 등 전세계 20여 곳의 놀이공원에서 공연됐다.

공연에서는 분자의 성질을 알 수 있는 '분자놀이', 냉동인간의 원리를 알 수 있는 '액체질소', 힘의 분산원리

를 보여주는 '못침대 사건', 관성의 법칙을 응용한 '에어 머신', 화학실험으로 열을 발생시키는 '거품공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극은 과학자 프루빗 교수와 그의 피짜 조수 크래쉬가 실험실에서 과학실험을 하는 형식으로 관객을 무대에 초빙해 직접 과학실험의 대상이 되도록 하거나 실험조수 역할을 시키기도 한다.

요즘 극작계가 소재빈곤으로 시달리고 있는 형편임을 감안하면 과학극에 눈을 돌려봄직하다. 해외에서는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로알드 호프먼 미국 코넬대 교수와 칼 제라지 미국 스탠포드대 교수가 대본을 써 화제를 모은 과학연극 '산소(Oxygen)'나 2년 전 일본 신국립극장에서 매진을 기록한 핵물리학자들의 이야기인 '코펜하겐' 등 과학연극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두 작품 모두 내용은 다소 어려웠음에도 과학적 주장을 둘러싼 플롯전개가 이채로웠고 과학자들간의 지적 자존심 대결을 바탕으로 한 갈등구조도 의외로 극적 재미를 부추겼다. '산소'는 지난해 8월 포항에서 공연됐으며 반응이 좋아 올해 5월에는 서울 대학로에서 재공연된다.

에리트 퍼니처

2000년 발명의 날

발명유공 금탑산업훈장 수훈 업체

2000년 발명의 날

발명유공 금탑산업훈장 수훈 업체

[컴퓨터와 가구의 이상적 결합 !!]

■ 여성발명협회 후원회장 경영업체 ■

에리트 퍼니처는 80여개의 지적 소유권을 보유, 앞선 기술력으로 가구의 과학화를 이룩하고 21세기 지식 정보화시대 구현을 위하여 앞장서 뛰고 있습니다.

특허품

특허품

특허품

특허품

특허품

특허품

특허품

학생용시울함

목재컴퓨터책상

하이톤학생용책상인자

열린교실책상

바이오서가

원목월형대

크림형소도구함

사무용책상(월형책상)

사무용가구 · 학교용교구 전문생산업체

(주) 에리트 퍼니처

대표전화 T : 031)236-2525(대) F : 031)239-3700 • http://www.elitec.co.kr • E-mail:mak@elitec.co.kr •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 T: 511-51721
 서산공장 T: 041)669-7500(대) F: 669-7736 • 용인공장 T: 031)333-1232(대) F: 339-0850 • 서울지사: 0 2406-2838(대) F: 406-2838 • 인천지사: 032)423-4141(대) F: 423-2505
 대전지사: 042)463-9366(대) F: 463-9369 • 전주점 T: 031)253-6877(대) A/S신청,불만사항 접수 080-236-2525(수신자요금부담)